

진위천 자연생태탐사를 통한  
교육용 Biotope Map 작성

# 진위천 꼼지락

(꿈知樂: 꼼꼼하게 알아보는 재미)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남부  
생태교육연구소



평택시립도서관



EM0145482

1.564  
311주

00

# 진위천 Biotope Map

「진위천 Biotope Map」은 진위천에 서식하는 각종 동식물의 생태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에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진위천물줄기를 중심으로 서식하고 있는 식물, 곤충, 조류, 민물고기, 포유동물, 수서생물, 외래동식물 등의 서식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을 포함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소중한 기초자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나타내고 있다.

평  
491.564  
-311x  
c.3

용인시

이동면



돌고기



각시붕어



대륙뽕잠자리

남사면



중복교



가시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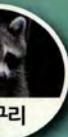
버들치



원앙



큰고니



고리



꼬리명주나비



다슬기



비오리



흰꼬리수리



단풍잎돼지풀



블루길



평택시립도서관



EM0145482

# 진위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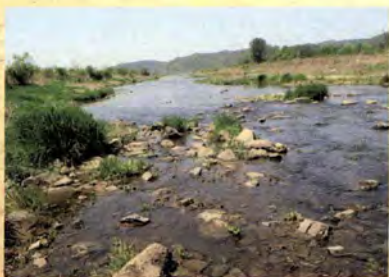
## 희망 이어가기

### 진위천의 희망, 꼬리명주나비와 쥐방울덩굴방울

생태하천이란 하천지역의 모든 동·식물이 물리적 환경과 상호관계를 가지며 에너지 흐름의 시스템 속에서 뚜렷한 영양구조, 생물의 다양성, 물질의 순환 등 생태계 질서에 의해 스스로 유지되는 하천을 말한다.

꼬리명주나비는 자연형 생태하천을 대표하는 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3~4회 나타나며, 긴 꼬리가 명주의 섬유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워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진위천 상류부터 황구지천에 이르기까지 관찰되고 있으며 날갯짓이 유연하여 미풍을 타고 평지나 풀밭 위를 미끄러지듯 날아다닌다.

꼬리명주나비는 그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과 함께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가는 생물자원 중 하나로 서식지를 떠나지 않고, 특히 사람과의 친화력을 지니고 있어 자연생태 자원으로도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꼬리명주나비와 쥐방울덩굴 이야기



## 꼬리명주나비는

봄부터 가을까지 진위천에서 활동하는 나비로 암수의 색이 다르고 뒷날개 끝에 긴 꼬리 모양돌기가 달려 있다. 성충은 4월부터 10월까지 3~4회 나타나 애벌레의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을 중심으로 낮게 날며 냉이와 개망초 등을 찾는다. 꼬리명주나비는 우리 고장에서는 유일하게 진위천변 풀밭에 밀집하여 자라는 특성이 있어 평택호물줄기의 척박한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비로도 손색이 없다.



꼬리명주나비 수컷



꼬리명주나비 암컷



꼬리명주나비 짝짓기



꼬리명주나비 알



꼬리명주나비 애벌레



꼬리명주나비 번데기

## 쥐방울덩굴은

산림청 보호식물 151호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여러해살이풀로 우리나라 고유종인 꼬리명주나비의 먹이식물이기도 하다. 연둣빛의 꽃은 6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하여 8월까지 이어지며, 잎겨드랑이에 달리는 꽃은 나팔 모양으로 아래쪽이 흑처럼 볼록하고 그 윗부분은 갈매기처럼 생겼다. 가을에 익는 둥근 열매는 6개로 갈라지며 길게 매달려 낙하산 모양을 이룬다.



쥐방울덩굴 꽃



쥐방울덩굴 열매



## 불박이로 사는 천연기념물, 원앙



그동안 안성지역의 마둔저수지와 금광저수지 등을 중심으로 원앙의 서식지가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몇 년 전 진위천의 최상류인 이동저수지에서 300여 개체의 무리가 확인된 이후 진위천 물줄기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멸종의 다른 이름으로, 황조롱이와 쇠부엉이로부터 흰꼬리수리에 이르기까지 물줄기 전역에서 천연기념물 조류가 관찰되고 있지만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보호받고 있는 원앙이가 최근 들어 진위천을 대표하는 불박이 천연기념물로 자리매김하여 진위천의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수컷의 몸 빛깔이 아름다운 원앙은 1982년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오리로, 전국의 산간계곡 물가에 있는 나무 구멍을 이용하여 번식하는 흔하지 않은 텃새이다. 겨울에는 월동하려는 무리들이 북녘에서 내려오므로 저수지·호수·하천 등지에서 몇 마리 또는 100~200마리씩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원앙 암컷



원앙 수컷



원앙 한쌍



진위천의 원앙

## 우리나라 고유종, 각시붕어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은 갖가지의 묘책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알이나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 가시고기와 같이 둥지를 만들거나, 밀어와 같이 굴을 파는가 하면, 어름치와 같이 산란탑을 쌓거나, 동사리와 같이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며 알을 지키기도 한다. 우리 주변의 민물고기를 자세히 관찰하노라면, 또 한가지의 기상천외한 산란방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살아 있는 조개의 몸 안에 알을 낳는 방법이다. 이 약고 영리한 물고기의 주인공이 바로 납자루 종류에 속하는 각시붕어이다.



혼인색을 띄고 있는 각시붕어 수컷



산란관을 늘어뜨리고 있는 각시붕어 암컷



각시붕어



민조개에 산란하는 각시붕어 암컷



관상용 각시붕어

각시붕어는 물의 흐름이 느리고 물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얕은 하천이나 저수지에 산다. 5~6월의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을 띠며, 암컷은 산란관을 길게 늘어뜨리고 온갖 멧을 낸 수컷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민물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는다.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몸통의 높이가 높고, 꼬리지느러미가 시작되는 지점의 중앙에는 뒤쪽으로 이어지는 적색의 무늬가 있다. 수심이 낮은 진위천 상류 쪽에서 관찰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몸길이가 작고 귀여워 관상용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사진출처 : <특징으로 보는 한반도 민물고기> 사진 노세운

# 진위천

## 넷가친구들

### 진위천 넷가의 풀꽃 · 나무꽃

#### 진위천의 봄

진위천의 봄은 햇빛이 잘 드는 제방 돌망태 사이에서 시작된다. 겨우내 찬이슬을 이겨낸 개망초와 달맞이꽃의 로제트잎 사이로 별꽃의 작은 무리가 모습을 드러내며, 둔치 주변의 빈터에서 꽃다지와 냉이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꽃다툼을 하며, 선버들의 꽃밥주머니와 함께 뱀머리 모양을 한 쇠뜨기의 포자낭 또한 지나가는 바람에 포자를 실어 보낸다.



쇠뜨기

#### 진위천의 여름

1년 중 진위천의 모습은 여름이 제철인 것이다. 물위에는 개구리밥과 마름이 덮이고, 물가에는 갈대와 부들 그리고 화병에 꽂아두고 싶은 부들과 같은 키 큰 수생식물이 하천을 감싸며, 제방변 풀밭에는 노란색으로 독길을 코팅이라도 하듯 달맞이꽃의 무리가 진위천을 힘있게 지켜보고 있다. 바야흐로 여름인 것이다.



부들

#### 진위천의 가을

진위천의 가을은 개여뀌와 왕고들빼기, 미국가막사리에서 시작하여 고마리와 사데풀, 산국과 동탄지로 마감한다. 여름 내내 물가에서 혹은 바람 잦은 독방길에서 온갖 어려움을 몸으로 느껴왔던 갈대와 억새는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모습으로 하천 주위를 감싸며, 미국쑥부쟁이와 뽕탄지는 진위 향교앞 하천변에서 가는 시간을 아쉬워하듯 더욱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왕고들빼기



• 봄 Spring



갯버들



꽃마리



민들레



벌꽃



애기똥풀



지칭개

• 여름 Summer



개말초



물나물



뚜정덩굴



마름



박주가리



미수리

• 가을 Fall



고마리



똥단지



미국나팔꽃



산국



억새



왕고들빼기

# 진위천

## 풀밭에 깃든 곤충

하천생태계는 수중생태계와 육상생태계 중간에 위치하면서 생화학적 순환기능이 활발하고 생태적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에 속한다. 여느 하천에서와 같이 진위천의 곤충은 물속 또는 물위에서 성장하거나, 일부가 물에 잠겨있는 마름이나 부들에서부터 정수 및 하원식물역을 덮고 있는 초본류와 하변림의 버드나무, 아까시나무, 족제비싸리에 이르기까지 넓은 생활권을 갖고 있다.

이른 봄 성채로 겨울을 난 네발나비의 기다렸던 날개짓이 쥐방울덩굴을 찾아 오가는 꼬리명주나비의 여유로운 날개짓으로 이어질 때면 진위천 곤충들의 한살이는 더욱 그 의미를 더하게 된다.

### 진위천 물가와 풀밭의 잠자리

잠자리과의 밀잠자리와, 좀잠자리류, 뽕잠자리, 깃동잠자리는 주변 여느 곳처럼 흔한 편이었지만 진목과 주변에서는 어리부채장수잠자리와 장수잠자리, 호리촉범잠자리가 확인되었고, 날개띠좀잠자리는 진위천 상류의 중복교 주변 풀밭에서 큰 무리를 지어 활동하고 있었다. 특히 맑은 물에서만 볼 수 있다는 물잠자리는 버들치가 살고 있는 진위천 상류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산하천 합류 지점서 여러 개체가 조사자의 눈에 띄었다.



검은물잠자리



노란띠좀잠자리



장수잠자리



호리촉범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 진위천 풀밭의 나비

하천이란 환경의 특성상 진위천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나비는 흰나비과의 배추흰나비와 노랑나비, 네발나비과의 네발나비 정도로 초원성 나비가 주류이지만, 쥐방울덩굴을 먹이식물로 하는 꼬리명주나비와 사향제비나비 그리고 산형과 식물을 찾는 산호랑나비, 소리쟁이를 찾는 큰주홍부전나비와 함께 드물치 않게 관찰되고 있다.



네발나비



산호랑나비



큰주홍부전나비



호랑나비

## 진위천 풀밭의 메뚜기

하천 정비에 의하여 직강화 된 진위천변 고수부지는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으로 곤충들을 맞고 있다. 편하게 주변 곤충을 찾아보는 관찰 곤충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진위천에서 만나게 되는 메뚜기류는 모두 10 여종 정도였다. 여치과에서는 실베짚이가, 귀뚜라미과에서는 왕귀뚜라미, 모메뚜기과에서는 모메뚜기, 메뚜기과에서는 벼메뚜기, 섬서구메뚜기, 등검은메뚜기의 개체수가 많았으며, 드물게 풀무치가 안성천과 통북천에 이어 이곳서도 확인되었다.



메뚜기



등검은메뚜기



섬서구메뚜기



왕귀뚜라미



풀무치



실베짚이

## 진위천 풀밭의 노린재

곤충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곤충과 식물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경우의 예는 너무도 많다. 쥐방울덩굴의 잎과도 비슷하여 잘 보아야 하는 박주가리와 진위천 전 지역서 크게 무리지어 자라고 있는 개망초의 경우는 그 어느 식물보다도 십자무늬긴노린재를 곁에 두고 있는데 번식기에는 약충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진위천 풀밭에는 이들 외에도 알락수염노린재, 풀색노린재, 메추리노린재, 우리가시허리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등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십자무늬긴노린재



알락수염노린재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진위천 풀밭의 딱정벌레

곤충 중에서 가장 큰 무리를 갖고 있는 딱정벌레는 진위천에서도 종의 수 또는 개체수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진위천의 대표적 곤충인 풍뎅이는 물줄기를 따라 넓게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먹이식물이 되는 겹달맞이꽃의 무리와도 관련이 있다. 진위천 풀밭에는 이들 외에도 좀남색잎벌레, 콩풍뎅이, 남색 초원하늘소, 무당벌레 등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무당벌레



중국참남색잎벌레



풍뎅이



좀남색잎벌레



남색초원하늘소

# 진위천 젓먹이 동물



지속적인 조사활동 및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조사 결과 진위천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6종 정도로 몸집이 큰 사슴과의 고라니와 개과의 너구리는 진위천과 안성천 등 평택호물줄기의 풀밭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식육류에는 고양이과의 삿대, 식충류에는 두더쥐가, 설치류에는 갈대밭의 멧밭쥐가 진위천의 젓먹이 동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 진위천 풀밭의 대표 포유류

**고**라니는 물억새가 무리지어 자라는 하천처럼 물이 있는 땅을 좋아하며, 논과 들에 가깝고 주로 산과 연결된 산기슭에 서식한다. 평택 전역의 야트막한 산이나 마을 숲이 있는 곳과 평택호물줄기 주변 풀밭에서 적지 않은 수가 관찰되고 있다.



고라니

**너**구리는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잡식성으로 포유류 중에서 먹이 적응력이 뛰어나며,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여 도시에서 산악 지역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게 분포한다. 가까운 산기슭과 하천변에서 고라니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자국을 발견할 수 있는 종이기도 하다.



너구리

**삿**대는 산림지대에 주로 살며, 야행성이고 단독 또는 한 쌍으로 생활한다. 마을 근처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오래 전 진위향교 앞에서 관찰된 적이 있으며, 경기도 민감지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용역 최종보고서에도 평택호물줄기를 중심으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삿대



# 진위천

## 민물고기



몇 년 동안 진위천 상류지역인 어비리저수지 방류구에서 진위천 중·하류수역 구간에 걸쳐 조사된 민물고기는 30 여종으로, 어류상의 특징은 평택호물줄기 전 구간을 통해 널리 분포하고 있는 피라미가 우점하였으며, 1급수 지표종인 버들치가 다슬기가 서식하고 있는 상류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구간서는 각시붕어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 남동부 지역서 들어온 호소성 어류인 외래종 배스와 블루길의 출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진위천 냇가의 일반어종

일반인들이 '민물고기' 하면 흔히 떠올리는 어종으로, 피라미와 붕어, 줄몰개, 돌고기, 버들치, 돌마자, 잉어, 미꾸라지 등은 평택호물줄기에서도 흔한 민물고기 중 하나이다.



잉어



돌고기



피라미

### 진위천 냇가의 고유종

고유종이란 어름치와 쉬리 등 어느 일정한 지역이나 수역에만 분포하고 원래 그곳에서 서식하는 종을 말하며, 특산종이라고도 한다. 진위천 냇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종으로는 얼룩동사리, 각시붕어, 물개, 긴몰개, 돌마자 등이 있다.



긴몰개



각시붕어



얼룩동사리



## 진위천 냇가의 외래어종

외국에서 들어와 진위천에 출현하고 있는 외래어종은 큰입배스와 블루길, 떡붕어 등이 있다. 1970년대 북미에서 들어온 큰입배스는 안성천과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이 한 곳으로 모이는 평택호물줄기의 대표적인 외래어종으로 성질이 급하고 사나운데다가 엄청난 포식자로 알려져 있으며, 아가미 뚜껑 위에 귀처럼 보이는 푸른색 점이 있어 블루길(Blue gill)이라 이름 붙여진 파랑볼우럭 또한 민물새우와 작은 물고기를 닮는 대로 잡아먹어 기존의 하천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 진위천 냇가의 수서생물

수서생물이란 물속에서 사는 동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잠자리와 하루살이, 물자라, 게아재비 같은 수서곤충류로부터, 다슬기와 말조개 등의 연체동물류, 지렁이와 거머리 등의 환형동물류 등이 생활사 일부 혹은 전부를 진위천 냇가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다귀



게아재비



대륙백잠자리



물자라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장구애비



# 진위천 물새, 들새

## 진위천 냇가의 물새

### 중대백로



물이나 물가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진위천의 새는 평상시 40 여종이 관찰되고 있으며, 물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여름새로는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황로, 검은댕기해오라기 등의 백로류와 물떼새류이다. 겨울새로는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원앙 등의 오리류와 중대백로의 아종인 대백로 그리고 최근에는 민물가마우지가 드물지 않게 관찰되고 있다. 한편 홍원제지, 매일유업, 영풍제지 등 주변 공장배수

의 방류로 얼지 않는 하천이 된 진위천은 여름새의 텃새화 현상이 백로과 새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물총새와 꼬마물떼새에까지 이르고 있다.



꼬마물떼새



황로



원앙

## 진위천 냇가의 들새, 산새

진위천에서 확인된 들새·산새류는 추운 겨울날 환삼덩굴과 검달맞이꽃의 열매를 바쁘게 뒤지는 붉은머리오목눈이와 딱새 그리고 진위향교 뒷편 무봉산에서 건너온 피코리와 파랑새 등 모두 40 여종이 관찰되고 있다.



까치



까치



때까치





## 진위천에 정말 흔한 새

### 흰뺨검둥오리 (*Anas poeclorhyncha*)



흰뺨검둥오리는 전장 61cm 정도의 큰 암갈색 오리로,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이나 겨울에는 북쪽의 번식집단과 혼성 월동하는 겨울새이기도 하다. 11월 이후 주변 저수지와 평택호물줄기 전역에서 청둥오리와 섞여 있는 흰뺨검둥오리 무리를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초여름 6월에는 영풍제지 최종 폐수방류구 지점 주변과 오산천 합류 지점 그리고 황구지교 주변에서 어린 병아리를 몰고 다니는 흰뺨검둥오리 가족의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 진위천 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중대백로



왜가리

평택의 자연환경은 습지와 평야의 발달로 오래 전부터 백로과 새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평택호로 이르는 물줄기 주변으로 많은 백로과 새들이 모였고, 소나무가 있는 마을 숲을 중심으로 함께 둥지를 틀었다. 고덕면 울포리와 진위면 동천리, 서탄면 회화리의 경우는 마을을 지나는 진위천을, 팽성읍 근내리와 노양리는 안성천을 바로 곁에 두고 서식지가 형성되어 있다. 평택지역을 찾는 백로과 새들은 모두 10여 종으로, 이 중 해오라기와 황로, 중대백로, 중백로, 쇠백로, 왜가리 등 6종이 서식지에서 둥지를 틀어 번식을 하고 있다.



동천리백로 및 왜가리 서식지

# 진위천

## 낯선 친구들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국제간의 무역량이 급증하고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이동을 통하여 국가와 국가간에 생물체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생태환경에 이주한 생물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기존의 토착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진위천의 귀화식물

귀화식물은 외국의 자생지로부터 인간의 매개에 의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옮겨져 여러 세대를 반복하면서 야생화 내지는 토착화된 식물로, 서양민들레부터 시작하여 개망초, 망초, 돼지풀, 비짜루국화, 미국쑥부쟁이, 뚝뚝지에 이르기까지 70여 종에 가까운 식물이 관찰되고 있다.



가시박



개방초



겁달맞이꽃



나팔꽃



단풍잎돼지풀



둥근잎유홍초



뚝뚝지



미국실새삼



미국쑥부쟁이



서양민들레



자주광대나물



큰개불알풀



## 진위천의 외래동물

진위천 냇가의 대표적인 외래어종이 큰입배스와 블루길이라면, 황소개구리와 붉은귀거북은 진위천 냇가를 넘어 평택호물줄기를 대표하는 외래양서·파충류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외국 원산의 생물종으로 국내에 유입되어 생물다양성 감소, 생태계교란 등 자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생물종' 즉 생태계 교란종으로 구분되어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를 받고 있다.

###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는 개구리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원래는 미주지역에 분포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식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일본에서 들여온 이후, 양식장에서 빠져나간 개체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저수지, 하천 등 물이 고여 있는 지역에서 서식하며, 평택 및 안성지역에는 인근 저수지 일부와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 등지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관찰되고 있다.



### 붉은귀거북 (*Trachemys scripta elegans*)

청거북으로도 잘 알려진 붉은귀거북은 눈의 바로 뒤쪽에 붉은색 무늬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많고 비교적 흐름이 약한 호수나 큰 강에서 주로 살며, 작은 웅덩이에서도 볼 수 있다. 주위에 늪지대와 같이 물풀이 많은 곳을 좋아한다. 평택 인근지역의 연못과 진위천과 안성천은 물론이고 평택호물줄기 전역에서 드물게 관찰되고 있다.



# 진위천

## 꼬지락

### 도서관 이용안내



소는  
명중심의  
합니다.

- ▶ 평택시립도서관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료를 소중히 아껴주십시오.  
※자료를 더럽히거나 파손 시 변상하셔야 합니다.
- ▶ 도서관회원가입 : 신분증, 사진
- ▶ 도서대출 : 14일간(1회 한 7일 연기 가능)
- ▶ 평택시립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www.ptlib.net](http://www.ptlib.net)  
- 자료 찾기, 대출이력정보, 반납연기, 도서예약, 희망도서신청, 전자책 이용 등 가능
- ▶ 031-8024-5465(어린이실)/5477(일반실)



평택시립도서관

교육연구소

충 (세교동 260-3)  
031-654-5053  
1426-83